삶을 옭아매는 '명분'에서 해방되라

어떤 명분이든 환상에 불과하다

-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나는 그저 나다. 신분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. 그건 그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생활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.
-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신분과 이름에 꽁꽁 묶여 자유로운 인생을 고리타분한 명분 속에 가두고 에너지와 개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다. 어떤 명분이든 그저 환상일 뿐이다. 형형색색의 명분을 꿰뚫고 늘 한결같은 자기만의 自性을 발견해야 한다.

명분을 버리고 홀가분함을 얻다

- 남들이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여 이런 저런 울타리에 가두려 한다. 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. 그것은 남들의 일일 뿐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다.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여 어떤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.
- 마르크스는 "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다 가지고 있다."고 말했고, 부처는 "누구에게나 佛性이 있다"고 했다. 우리가 우주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우주가 들어 있는 것이다.

나를 부르는 명칭이 무엇이든
그것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.
살면서 붙여진 모든 이름을 다 합쳐도
다채롭고 오묘한 인생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.